



AOA · 프리스틴V  
걸그룹 컴백 '주목'

올 여름 가요계는  
걸그룹이 하드캐리

▶ 그룹 'AOA'가 28일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다섯 번째 미니앨범 '빙글빙글(BINGLE BANGLE)' 발매 쇼케이스를 열고 신곡을 선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민아, 지민, 설현, 혜정, 유나, 찬미.



K팝 스타4 우승 케이티 김, 3년만에 데뷔 초읽기

SBS TV 오디션 프로그램 'K팝 스타4'에서 우승한 케이티 김(25)이 3년 만에 새로운 소속사와 활동명으로 정식 데뷔한다. 케이티김이 새로 동지를 튼 크리에이티브 콜렉티브 액시즈는 "케이티김이 케이티(KATIE)라는 이름으로 새 앨범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 부천시에서 태어나 열 살 때 미국으로 이민한 케이티는 버클리 음대에서 뮤지션의 꿈을 키우던 중 2014년 우연히 'K팝스타4'에 지원했고 2015년 이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후 YG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 음반을 준비해왔다. 그러다가 데뷔를 함께 준비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신시티와 손잡고, 액시즈의 첫 뮤지션으로 나서게 됐다. 케이티는 소셜 미디어와 액시즈 홈페이지를 통해 '더 버스 오브 케이티'라는 테마로 콘셉트 사진을 공개했다. 우주 한 가운데 특수공간에 자리한 케이티의 모습은 신비롭고 미래 지향적인 느낌이다. 신시티와 일본 포토그래퍼 츠치야 분고, 비주얼 디렉터 카일리 후카다와 협업했다. 케이티는 데뷔일까지 새로운 이미지를 속속 공개할 예정이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주목 받는 걸그룹 'AOA'와 '프리스틴'의 유닛 '프리스틴 V'가 28일 나란히 새 앨범을 발표했다.

▶ 6인그룹 재팬 AOA, 1년5개월만에 미니앨범 '빙글빙글'  
6인 그룹으로 재팬한 AOA는 1년5개월 만인 이날 다섯 번째 미니앨범 '빙글빙글'을 선보였다. 타이틀곡 '빙글빙글'은 '핑키 서머 송'을 표방한다. 멤버들은 "빙글빙글"을 통해 전매특허인 건강하고 밝은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2012년 데뷔한 AOA는 당시 댄스 그룹과 밴드 활동을 병행하는 팀으로 관심을 모았다. 멤버 7명 중 지민(27), 초아(28), 유나(26), 민아(25)에 밴드 활동에만 나서는 유경(25)이 가세, 5인 밴드 유닛 'AOA 블랙'이 완성됐다.

하지만 유경을 제외하고 설현(23), 혜정(25), 찬미(22) 등을 더한 7인 댄스 그룹이 '짧은 치마' 등으로 인기를 누리며 밴드 유닛은 없어졌다. 결국 유경이 2016년 팀을 나갔다. 이후 완전한 댄스 그룹이 됐다. 지난해 6월 보컬 초아가 팀을 떠났다. 이번 앨범은 초아 탈퇴 후 6인 그룹의 첫 활동이다.

찬미는 이날 쇼케이스에서 초아의 공백에 대해 "멤버들이 다 같이 연습을 통해서 채웠다고 생각한다"면서 "6명에서 무대가 비어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 10인그룹 프리스틴, 5인 유닛 활동... 프리스틴V, 새 앨범 '라이크 어 브이'

10인 그룹인 프리스틴은 5인 유닛 프리스틴V로 새 앨범 '라이크 어 브이'를 발표했다. 나영(23), 로아(21), 은우

(20), 레나(20), 결정(20)으로 구성됐다. 프리스틴이 데뷔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유닛이다. 원탑인 프리스틴의 청순하고 섹시한 모습과 달리 '빌런 콘셉트'로 '컬크러시 매력'을 뽐낸다고 소속사 플레디스는 전했다. 특히 타이틀곡 '네 멋대로(Get It)'는

프리스틴이 시도하지 않은 래치 기반의 R&B 팝 장르다. 래치는 단순하고 노골적인 사운드가 특징이다.

플레디스는 "네 멋대로' 뮤직비디오와 무대를 통해 파워풀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고했다. /뉴시스



프리스틴V ▶

방탄소년단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빌보드 차트 1위

외국어 앨범으로 12년만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이 K팝 역사를 새로 썼다. '팝의 본고장' 미국의 권위 있는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1위를 차지했다. 빌보드는 지난 27일(현지시간) 홈페이지 뉴스를 통해 방탄소년단이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로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8일 발매된 이 앨범은 24일까지 미

국에서 13만5000장이 팔렸다. 이 중 10만 장은 오프라인 앨범 판매량이다. 빌보드는 '전통적인 앨범 판매량(traditional album sales)'이라고 썼다. '빌보드 200'은 디지털음원 판매량 환산 음반 판매량(Track equivalent albums·TEA), 스트리밍 횟수 환산 음반 판매량(Streaming equivalent albums·SEA) 등을 기반으로 미국 내 인기 앨범 순위를 매긴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전작 '러브 유어셀프 승 '허''로 이 차트에서 세운 한국 가수 최고 기록인 7위를 스스로 경신하게 됐다. 특히 한국어 앨범으로 차지한 1위라 특기할 만하다. 빌보드에 따르면, '빌보드 200'에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로 낸 앨범이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한 건 12년 만이다. 2006년 영국 팝페라 그룹 '일디보'가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그리고 일부 영어 등으로 부른 노래들을 실은 앨범 '앙코라'로 이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월드뮤직 장르의 앨범 중에서 처음으로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는 기록도 세웠다. 빌보드는 아시아는 물론 미국 밖의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의 모든 음악을 '월드 뮤직'으로 구분한다. /뉴시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